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25. 1. 8(수) 18:00 ~ 1. 9(목) 05:15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석자 (13명)	김수민(경영대학 공동대표), 도재형(기획처장), 반지민(학부 총학생회장), 백은미(학생처장), 서유리(대학원 학생회장), 석지우(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송수진(학부 부총학생회장), 왕혜정(관리처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다연(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명휘(교무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정덕유(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p>1. 2025년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속행</p> <p>가.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1차 등심위 안건2)</p> <p>나.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 의결 (1차 등심위 안건3)</p> <p>다. 기금용도 변경(안) 심의·의결 (1차 등심위 안건4)</p> <p>2.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p> <p>가. 학부등록금 책정*(안)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p> <p>나.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p> <p>다.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p> <p style="margin-left: 20px;">1)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p> <p style="margin-left: 20px;">2)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p> <p style="margin-left: 20px;">3)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p> <p style="margin-left: 20px;">4)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p> <p>* 회의자료에는 '인상'으로 작성되었으나, 회의 중 별도 의결을 통해 '책정'으로 수정</p>														
의결사항	<p>[안건 1-가]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승인</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억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2025예산</th> <th style="width: 20%;">2024추경</th> <th style="width: 45%;">추경 대비 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수입</td> <td>4,478</td> <td>4,603</td> <td>-125</td> </tr> <tr> <td>지출</td> <td>4,478</td> <td>4,603</td> <td>-125</td> </tr> </tbody> </table> <p>[안건 1-나]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 승인</p> <p>※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 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 사유에 따라 등록금회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이월의 경우 연구학생경비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다.</p>			구분	2025예산	2024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4,478	4,603	-125	지출	4,478	4,603	-125
구분	2025예산	2024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4,478	4,603	-125												
지출	4,478	4,603	-125												

01'

반

ㄷ 2

	<p>[안건 1-다] 기금용도 변경(안): 승인</p> <p>[별도 안건] 안건 명칭 변경의 건: 승인 '학부등록금 인상(안)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안건의 명칭을 '학부등록금 책정(안)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로 수정하다.</p> <p>[안건 2-가] 학부등록금 책정(안)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승인</p> <p>[안건2-나]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승인</p> <p>[안건2-다]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 부분 승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 미승인 2)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 미승인 3)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 미승인 4)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 승인
<p>내 용</p>	<p>■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 작성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2차 회의는 학생위원 측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회차로 홈페이지 게시 일정을 감안하여 1월 10일 금요일 12시까지 회의록 초안이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하다. - 위원장이 예산팀장에게 회의록 서명 관련 안내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 확인 서명 시 전원 자필 서명과 더불어 대표위원 3인의 간서명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원장에게 호선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기획처장, 학생위원을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총 재적위원 13명의 위원 중 참석위원 13명으로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의 개최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1. 2025년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속행

- 가.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1차 등심위 안건2)
- 나.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 의결 (1차 등심위 안건3)
- 다. 기금용도 변경(안) 심의·의결 (1차 등심위 안건4)

2.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 가. 학부등록금 책정*(안)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나.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 다.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 1)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
- 2)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
- 3)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
- 4)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

* 회의자료에는 ‘인상’으로 작성되었으나, 회의 중 별도 의결을 통해 ‘책정’으로 수정

- 위원장이 1차 등심위에서 요청한 대외협력처 관계자 배석 관련 일정 확인하였고 행사 진행과 기부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참석이 어렵고 추후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고 안내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차 등심위 안건 관련 왜 기존 안내되었던 학부 등록금 책정안이 없는지 질의하다. 3차 회의 개최의 의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안건이 빠지는 건 옳지 않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3차 등심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오늘 의결하자고 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 내용을 오늘 의결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 안건이 3차 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기존의 안건이 빠지는 건 옳지 않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오늘 진행하기로 한 안건 자체가 빠져 있는데 회의 개최 요건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다.

- 기획처장이 어제 학부 등록금 책정에 대한 3차 등심위 개최를 논의 하였고 오늘 그 안건을 심의·의결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그 심의·의결을 오늘 하는 것이므로 기존 안건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또한 2차 등심위의 회의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지난 회의에서 확정하였기 때문에 사전열람 시간이 없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회의자료 내에 추가된 자료가 생긴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의 의견은 회의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열람 자료가 없다고 하여 기존 송부된 회의자료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다른 자료가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다. 이는 3차 등심위 개최를 확정적으로 보고 만들어진 안건이어서 비민주적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1차 등심위에서 합의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오늘 등심위에서 발의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걸 진행한 후 의결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였다고 발언하고, 또한 학부 등록금 동결안은 학교측의 의견에 따라 철회되었다고 본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은 철회라고 합의한 적이 없고 날짜를 나누는 것에 대해 심의·의결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을 그렇게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1차 등심위에서 2차 등심위 중 학부, 대학원 등록금 분리 심의·의결 여부를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오늘 의결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을 철회하면 안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안건 관련 해석을 하여 철회를 하면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책정안이 정식 안건인 것이며, 학생위원들이 1차 등심위에서 논의를 여러번 진행하는 다른 대학 사례를 언급했듯이 등심위는 책정 관련해서 논의를 여러번 계속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1차 등심위를 통해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학부 등록금 관련 3차 등심위 개최여부를 의결한 후, 대학원과 신설학부/학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는데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에 당황스럽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어제의 만장일치 내용은 1차 등심위 미의결 안건에 대한 2차 등심위 의결 뿐이었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어제 예산안 관련 질의응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속행을 하는데 계속 안건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2025학년도 예산안은 등록금 동결을 가정하고 편성되었기에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질의응답을 하려는 것이었으며, 등록금 인상/동결 여부는 의결을 해보아야 아는 것인데 왜 등록금 인상에 관한 추가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또한 사전열람은 왜 어려운 것인지 지적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 또는 결산 자료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고 회계 지식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생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동안 사전열람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며, 등록금 책정안에 추가된 자료들은 참고자료일 뿐이어서 사전열람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이며, 법적상한 자료는 등록금 규칙을 확인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자료들도 단순 참고자료임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등심위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던 방식이어서 사전열람자료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원 안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대로 진행은 곤란하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오늘은 1차 등심위 속행도 진행해야 하고 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자료로써 작성이 된 것이고 안건이 사라졌다고 보기에 오해가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기존에 있던 학부 등록금 동결안은 빼고 3차 등심위 관련 안건을 넣은 것은 학교측에서 무조건 의결될 것이라고 본 것 아닌지 의문을 표하고, 추가 자료로 넣은 서강대 등록금 인상자료, 불가인상 자료 등은 인상을 상정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참고자료는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관련으로 제공되었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사전자료도 제공되지 않았고 안건도 잘못 작성되어 있으며, 1차 등심위에서 동결안 철회가 아닌 다른 날짜에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진행하는 것만 논의가 된 것임을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서강대 인상 관련 자료는 대학원 등록금이 아닌 학부 등록금 관련 자료로 보인다고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 상정 관련하여 1번 안건의 경우 1차 등심위에서 속행하기로 한 부분이고, 2번 안건의 경우 정확한 내용은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이며, 다른 학교 사례처럼 등심위에서 논의를 지속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고, 3차 등심위를 개최하여 학부 등록금을 논의하자는 것은 어제 합의가 된 부분이어서 오늘 3차 등심위 일정을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의 첫 번째 안건은 학부 등록금 책정안인데 왜 3차 등심위 안건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부등록금 인상안 심의·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에서 인상안을 책정안으로 바꾸면 되겠냐고 질의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1차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 관련 3차 등심위 개최를 합의했다고 학교측이 주장하는데,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면서 등록 일정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이고, 따라서 오늘 그 안건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기존 안건이 철회되는 것은 어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발언하다. 또한 그러한 회의자료를 알지 못하는 채로 회의에 참석한 것은 정보가 확연히 부족하므로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3차 등심위의 회의 절차에 대해 학교측의 수정안을 표결하고 원안인 동결안도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고 하다.

- 위원장이 1차 등심위에서 학부, 대학원 등록금 책정 분리심의·의결을 논의한 것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별도 개최안까지 합의한 것은 맞지만 원안도 함께 진행되는게 옳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3차 등심위 일정에 대한 의결을 하자는 것이며, 1차 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응답이 많다고 하였는데 왜 그에 대한 진행은 하지 않는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 진행에 앞서 안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답하다.

	<p>- 기획처장이 1번 안건이 부적절한지 질의하다.</p> <p>-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3차 등심위 개최 여부에 대해 오늘 의결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부결시에는 원안으로 진행을 해야 하므로 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회의자료는 회의하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1차 등심위 진행시 등록금 책정 관련 학생위원들이 학교 측 인상안에 대한 요구안 준비 등 3차 등심위 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언급하고, 또한 3차 등심위 안건이 부결이 되면 나머지 안건을 진행한 후 동결안과 수정안을 모두 준비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또한 예산팀에서 이런 순서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발언하고, 1번 안건에 문제가 없으며 진행을 제안하다.</p> <p>- 위원장이 1번 안건 진행 후 휴식을 갖고 기존의 동결안을 포함한 2번 안건 진행하자고 제안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금 새로 준비한 후 시작하자고 제안하다.</p> <p>-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사전자료를 메일로 송부하고 2~3일 전에 공유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어제 2차 등심위 회의 자료는 별도로 없다고 하였는데 사전 미공유한 상태로 갑자기 회의 시작 시간에 제공된 것에 절차상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이고, 학교 측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잠시 휴회를 하고 학생위원들에게 논의할 시간을 주는 것을 제안하다. 또한 추가된 자료는 단순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p> <p>- 예산팀장이 제공된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과 물가지수 등 단순참고자료일 뿐인데 이를 문제삼겠다면 회수하고 사전에 송부한 회의자료 외 참고자료는 없다고 발언하다.</p> <p>- 위원장이 1번안을 먼저 진행한 후 휴회를 하여 기존의 동결안을 포함한 2번안을 준비하여 진행하자고 제안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휴회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지금 원안을 포함한 후 진행해달라고 발언하다.</p>
--	---

20/4

민

61

반

86

72

- 기획처장이 그럼 지금 동결안과 학교 측 수정안도 함께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하다. 수정 안건 관련 사전 통지 등을 언급하였기에 3차 등심위 진행을 하고자 한 것인데, 정확히 본 안건은 등록금 책정안이므로 인상과 동결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안건의 철회나 변경이 있으면 회의 자료 송부 기한에 맞게 송부해야 하며, 안건의 제목만 동일하고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다시 회의 일자를 정하여 자료를 송부하는 게 맞고 이런 식의 변경은 부당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렇기 때문에 3차 등심위를 진행하자고 한 것이며, 지금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원안을 표결하는게 의사규칙상 맞다고 발언하고, 그런 경우 휴회와 수정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인 동결안을 가져와 달라는 거라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원안이 필요한 이유가 현재의 교비회계 예산안이 동결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거라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등록금 뿐만 아니라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지 않고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다만 2024년 12월 4차 등심위에서 의결한 외국인 등록금 인상은 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추가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안 관련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진행하지 않는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원안이 빠진 안건의 문제가 있기에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은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이며, 그걸 논의하여 동결 또는 인상에 표결을 하는 것이고 의사규칙상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것이니, 우선 예산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1차 등심위 속행 안건을 의결한 후 만약 부결이 되면 휴회하여 학부 등록금 책정 관련 수정안을 준비한 다음 2차 등심위 안건 진행을 제안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정안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언

하다.

- 기획처장이 그래서 3차 등심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차 등심위는 학교측 의견일 뿐이고, 수정안 처리를 위한 3차 등심위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어제 학생위원측에서 3차 등심위 관련 발의를 요청하였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발의 요청한 것은 학부,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었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한 적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안 관련 질의응답할 게 많다고 하여 속행으로 진행을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부 등록금 책정 관련 학생위원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3차 등심위가 진행되는 것이며, 오늘 본인에게 발의를 준비하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안 질의응답을 많이 준비하였는데 안건부터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에 문제가 있으니 속행 안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여 안건을 다시 준비하여 진행하자는 것이며, 갑자기 수정안을 제시하면 학생위원측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3차 등심위 일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 발의를 요청받은 것이고, 만약 오늘 표결을 진행할 것이면 수정안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임을 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안건 제목은 그렇지만 송부받은 안건 내용은 동결이므로 원안에 따라 표결을 하자는 것이며, 질의응답 진행을 계속 지적하는데 등심위 자체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운영이 될 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왜 계속 진행만을 주장하는지 의문을 표하다.

- 기획처장이 1차 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예산안 표결시 위원장이 찬성 표결 후 표결절차를 문의하여 반대/기권 두 가지 의사가 있어 표결 의사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나 잘못된 답이었으며, 과반수 찬성만 충족되면 의결이 된 것이 맞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속행을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으나 현재 개최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개최는 되었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1차 등심위에서 학부,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하자고 한 것은 수정이 있기 때문이며, 원안 그대로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회의로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분리할지 논의한 것은 수정안을 상정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회의에서 등록금 동결 전제에서 각 처의 한계상황, 의대 휴학 등이 언급되어 예산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예산안과 등록금 책정안을 같이 3차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단 대학원 등록금은 등록 일정 문제가 있으니 분리를 논의한 것이며,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 성격상 등록금 책정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해진 안으로만 논의하는게 아니라 수정안이 나올 수 있으며, 그래서 1차 등심위에서 기 송부한 동결안은 철회를 하고 인상안을 준비하겠다고 알려진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래서 3차 회의에 대해 논의를 진행을 한 것인데 그럼 원안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게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학부, 대학원 등록금을 다른 날짜에 의결하자는 안건도 심의가 되지 않았는데 수정안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래서 3차 등심위 개최여부에 대해 표결을 하자는 것이며, 내규상 등심위 회의개최 일정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 회의에서 의결 하기로 하였으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차 등심위 개최 여부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원안도 안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오늘 학부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진행을 원하면 3차 등심위는 불필요하며,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원안이 있어야 수정안도 있는 것인데 원안이 회의자료에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은 등록금 책정이며, 그것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자료에 동결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수정안은 있지도 않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래서 휴회를 진행하여 수정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며, 3차 등심위 개최가 부결이 되면 수정안을 준비를 할 것이며, 1번 안건의 경우 안건 자체에 문제가 없으니 진행을 해도 되지 않냐고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에 문제가 있으니 진행할 수 없는 것이며, 동결안이 포함이 되어야 해소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휴회를 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준비하겠다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예산안 변동 시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된다고 하였는데 등록금 인상은 큰 수입의 변동이고 나중에 반영하는게 말이 안되며, 그 수입의 지출처가 불확실하여 질의응답 자체가 불가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팀에서 어제 회의 결과에 따라 준비를 하였는데 학부 등록금은 3차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그 때 학생 요구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한 부분이며, 사실 어제 2025학년도 예산안의 경우 절차상 의결이 종료되었으나 질의응답이나 반대, 기권 의사 표시 기회가 없었기에 속행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 진행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차 등심위에서 3개의 안건은 2차에서 속행하기로 의결을하기로 안 것이고, 동결안이라는 원안이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3차 등심위 안건은 부결한 후 휴회를 하고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원안과 수정안 포함하여 표결하자고 발언하다.

이

반

2

장우

원

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부결하자는 뜻이 아니고 가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동결안이 빠진 것이 문제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1차 등심위에서 3차 등심위 개최여부를 표결을 하고 대신 본인에게 그 준비를 해달라고 하여 그에 맞게 준비를 한 것이고 1차 안건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전체 안건이 완전하지 않아서 진행이 어렵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휴회를 하고 안건을 문제없게 재작성하여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잠시 휴회를 요청하다.

-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학년도 예산안 질의응답과 3차 등심위 개최 발의를 듣고 그에 대해 논의 및 의결 진행을 요청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진행하고 싶으나 위원회 절차와 안건이 잘못 되어서 진행이 어려우며, 만약 휴회를 하여 수정안을 준비하고 참고 자료는 회수를 한 이후 학교가 어떻게 할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속행안건 의결 후 3차 등심위 개최 여부 표결을 하고 부결이 되면 수정안을 준비하여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을 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왜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일반적 회의체에서는 수정안을 제시하면 먼저 표결을 진행한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미리 송부한 회의자료대로 진행을 해달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안건은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책정안의 내용이 등록금 동결이었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사전 송부하는 것은 회의 안건이며 그건 등록금 책정안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차 등심위에서는 안건 내용을 바꿔야 하니 법적 기한에 맞게 3차 등심위를 열자고 하였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기존에 등심위는 정해진 일정에 표결을 진행을 하였는데 1차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을 하루 만에 의결할 수 없다고 하여 3차 등심위 개최를 논의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원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계속 준비도 되지 않은 수정안을 언급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수정안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휴회를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오늘 3차 등심위 진행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만약 의결이 되지 않고 3차 등심위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준비하여 의결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획처장의 발언이, 학교측에서 책정안이라는 안건 내에서 동결은 철회하고 인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걸 진행할 수 있는 3차 등심위를 개최하자는 것인지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그렇다고 답하며, 수정안에 대해 다른 안건 처리 후 별도 심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 3차 등심위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개최하고 그 사이 예산 사용처 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며, 만약 그런 과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부결되면 오늘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등심위에 대한 합의는 수정안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으며, 인상에 대한 언급은 하였지만 이렇게 동결안은 폐기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지는 몰랐으며, 위원장도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계속 수정안을 제시하여 당황스럽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휴회하고 등록금 책정안을 동결로 준비하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1차 등심위에서는 등록금 동결안으로 3차 등심위를 진행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존 송부된 회의자료에 3차 등심위

개최여부만 추가되었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 일정은 내규상 의결사항이 아니며 1차 등심위 진행 중 시간이 촉박하니 만장일치로 남은 안건은 오늘 속행하기로 한 것이고, 1번 안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니 회의 진행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1차 등심위에서 합의한 것은 학부, 대학원 등록금 분리 심의 여부에 대해 표결을 오늘 진행하는 것과 1차 등심위 안건 일부의 속행이라고 발언하고, 인상안이라는 문구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책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3차 등심위에서 진행을 하자는 것이며, 어제의 인상 언급과 학부,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분리하자고 했을 때는 인상에 대한 전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측에서 분리 심의 의결과 그에 대한 발의를 요청했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의는 수정안이 아닌 분리 심의에 대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 안건이 포함된 것은 확인이 되는데 원안이 없음을 발언하다.

- 위원장이 안건은 등록금 책정이니, '인상'을 '책정'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차 등심위의 안건을 바꾸자고 한 적이 없고, 기존 동결안으로 오늘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 위원장이 분리 심의를 하기로 한 부분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분리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존 안 수정을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안이면 동결 뿐 아니라 어떤 결론이든 낼 수 있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안 관련 질의응답부터 진행을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이 수정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해소하는 방안을 이미 제안을 했고, 예산안 관련 진행 시간이 부족해 오늘 속행하는 것이므로 예산안 관련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는 게 옳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측에서는 동결안으로 의결을 하자는 건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기획처장이 3차 등심위 여부를 표결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니 예산안 질의응답 후 회의 진행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차 등심위를 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3차 등심위 개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냐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3차 등심위에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생각한 것이며, 오늘 동결안 의결을 진행하면 가부가 바로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측이 3차 등심위에 동결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을 3차 등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사전 송부된 회의자료가 오늘 회의자료와 동일해야 하며, 동결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규와 법률 사항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다. - 기획처장이 이미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들이 타교 사례를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학교도 등심위에서 같은 안건으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안건을 사전 송부해야 하는데 왜 다른 회의 안건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래서 3차 등심위가 필요하고 발의를 요청하여서 준비
--	--

이

반

w.

를 한 것이며 표결 결과로 3차 등심위가 개최되지 않으면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금 수정안은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렇지 않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차 등심위 개최가 부결되고 수정안을 의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래서 3차 등심위 개최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3차 등심위에 대한 발의를 요청한 것은 맞으나 기존 안건 수정은 곤란하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회의자료 수정이 필요하니 이를 위해 오늘 3차 등심위 개최를 의결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원안에서 추가로 3차 등심위 개최를 포함하는 것이지 안건 수정을 하면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리를 하자면 어제 합의한 내용이니 3차 등심위 안건을 표결하고, 가결되면 3차 등심위에 논의를 하고, 부결되면 지금 휴회하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그렇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수정안을 준비할거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랬으면 3차 등심위 개최에 합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시간에 수정안을 가지고 오는건 사전 송부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 자체는 책정안이며, 등심위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사전 송부자료가 동결로 작성된 것은 문제라고 발언하다.

	<p>- 기획처장이 그 부분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수정안을 준비하려면 휴회가 필요한데 어제 3차 등심위에 대해 합의를 하여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이며, 예산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진행을 바란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안건의 문세로 진행 불가하며, 송부받은 회의자료와 현재의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회의자료에 기재된 등록금 동결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동결안으로 처리하라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합의한 바와 같이 3차 등심위 개최 표결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수정안은 인정할 적이 없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사전송부자료에 책임을 지길 바라며, 원안대로 진행하는걸 왜 요청을 드려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p> <p>- 위원장이 1차 등심위 속행 안건은 진행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2차 등심위 안건 진행을 바란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안 원안이 아니면 질의응답이 불필요하다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3차 등심위 개최 안건 표결 후 부결되면 수정안을 마련하여 원안과 같이 표결을 하자고 제안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수정안 자체가 불가하다고 답변하다.</p> <p>-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예산안 의결을 주장하시는데 예산안과 등록금 안건이 정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예산안 보고는 1차 등심위에서 하였고 학생위원이 추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요청하여 진행하고자 한 것이며, 예산안은 보수적으로 편성하므로 등심위 의결 전인 등록금 인상을 미리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후 추경예산을 통해 변동사항을 반영을 한다고 설명하다. 또한 등록금이 인상되면 학생 요구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예산안 관련 질의응답이 없으면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수입이 달라지므로 의결이 불가하다고 발언하다.</p>
--	--

	<p>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집행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재차 의결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안건 상정이 잘못되었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해 찬성은 7명이었음을 밝히고, 반대 표결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모르는데 예산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어차피 바꿀 예산안이라면 뭘 믿고 의결을 할지 의문을 표하다. - 위원장이 당초와 추경예산을 다시 설명하며, 반대 표결을 요청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인상을 하려는 계획이면 의미가 없는 표결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안 안건 발의하였냐고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1차 등심위에서 4개 안건 모두 상정이 되었었고, 2025학년도 예산안 의결 도중 학생위원이 질의응답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2차 회의에서 속행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질의사항이 없다면 표결절차를 진행하자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질의응답을 미루는게 아니고 안건 자체의 문제가 있어 진행을 못하는 것이며,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바로 진행하려는 것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그냥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상정된 안건이 있고,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1차 등심위에서 합의를 하였으므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1차 등심위에서 갑자기 인상안을 언급하여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래서 오늘 속행을 하는 것이니 진행을 원한다고 요청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질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안건을 바로
--	--

잡아야 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예산안에 대해 반대와 기권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 오늘 마무리하려는 자리이므로 지금 질의응답을 요청하는 것이며, 일단 1차 등심위 속행 안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한다는게 위원장의 입장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안건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며 2차 등심위 안건이 편집되었으므로 질의응답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관리처장이 등심위가 1차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2차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설명하며,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등록금을 책정하더라도 학생위원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학생 요구안, 시설 투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반드시 등록금을 연결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며, 의결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왜 연결할 필요가 없냐고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등록금이 결정된 후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등심위 진행 순서도 예산안 심의, 등록금 책정 순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당초 예산안에 반드시 최종 등록금이 반영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며, 재차 의결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1차 등심위에서 예산안 안건 거수 표결을 진행 중이었으며, 최종 의결이 된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또한 보수적으로 예산안을 짜서 추경예산안을 대폭 변경시켜도 되는지 의문을 표하며, 안건 상정이나 안건 편집 등 모두 형식적으로 등심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교비회계 표결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다.

- 예산팀장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려는 것이며, 안건과 관련된 논의만 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니 속행 안건부터 회의 진행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이 편집되어 불가하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속행 안건부터 진행을 해야 한다는게 위원장의 입장이며, 1차에서 속행된 안건을 진행하지 않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 점을 지적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기존의 동결안을 포함하겠다는 약속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2시간 동안 계속 같은 논의가 반복되니 1차 속행 안건 진행하고 휴회 후 오늘의 안건 진행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도 2시간 동안 안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속행 안건 관련 진행을 원하며, 3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책정 심의를 하는 것이 합의되었다고 생각하여 오늘 표결을 한다고 보았으며, 오늘 학부 등록금 책정을 의결하지는 결정이면 휴회를 해서 학교측 수정안 준비 후 표결을 하자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1차 등심위에서 예산안 의결이 찬성 7명 이후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때 중단한 건 의결 진행 자체가 문제였다고 발언하고, 부속병원 관계자가 기다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의결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 밝히다.

- 기획처장이 위원들이 정확히 거수하여 표결하였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애초에 표결 과정으로 넘어가는 자체가 문제였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의결 연기는 학생들이 2차 등심위에서 질의응답하고 의결 진행하자고 요청을 한 것이며, 의결 절차를 지금이라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며 질의응답 진행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1차 등심위는 부속병원 관계자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오늘 속행된 것이며, 그렇지 않았으면 1차 등심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오늘 속행 안건 포함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건 문제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안건이 잘못되고 편집되었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속행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없으니 진행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변경된 회의자료를 회의장에서 처음 보는데 어떻게 표결이 가능하냐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합의하는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고, 속행 안건 진행 후 오늘의 안건도 상정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 입장은 안건 문제가 있으니 수정해달라는 것이며, 학교측에서 등록금 책정 수정안으로 의결을 하자고 하는데 원안인 동결안으로만 2차 등심위 안에서 표결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속행된 안건은 1차 등심위 안건이니 진행을 하고, 3차 등심위 개최 안건은 절차에 대한 안건이므로 어제 합의한 바에 따라 진행을 하자고 제안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소통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생위원 측에서 바라는 것은 안건 수정이 아닌 원안대로 3차 등심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동결안에 대한 수정없이 원안을 유지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속행 안건 표결 후 3차 등심위 개최로 결정을 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2차 등심위 원안으로 안건을 교체해 주길 바라며, 그래야 속행에 대해 납득하고 회의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안건에 대한 상호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 오늘 준비한 2차 등심위 안건은 폐기하고 원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는 회의체이니 진행 중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회의안건은 어제 합의한대로 학부 등록금 책정을 3차 등심위 개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오늘 의결을 하자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다른 대학들이 5.49%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인데, 추후 여러 차례 회의하여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율로 정할 수 있듯이, 학생위원들의 요구처럼 오늘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기보단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히 논의하자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오늘 학부 등록금 책정안 안건을 의결하여 가부가 결정되어 버리면 그 안건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으니 예정대로 학부, 대학원 책정

안을 분리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부,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분리 의결로 진행 하자고 합의한 부분인데 3차 등심위를 진행한다고 임의적으로 결정하는건 문제 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분리를 한다는건 당연히 날짜를 바꾸어 진행하는 것이며, 오늘 의결할 거면 분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1차 등심위에서 분리에 대한 의결을 하기로 하였고 만약 인상이라는 문구가 문제면 이를 수정해서 안건 상정을 하는게 어떨지 제안하다.

- 학생처장이 의결할 내용은 학부,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의 분리 의결 이며 학생위원의 지적처럼 인상은 정한 적이 없는게 맞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안 분리 심의·의결을 위한 3차 등심위 개 최안이라고 안건을 정정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을 언급하였는데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만 믿고 의결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안 편성 후 등록금 변동 시 추경예산 반영에 대해 다시 설명하며, 속행을 위해서 속행을 하는 것인데 속행 안건을 시작하지 못한 채로 벌써 시간이 3시간 넘게 지났음을 알리며, 문제 제기한 안건의 문구를 수정하고 회의 진행을 재차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과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을 제기한 상황에서 동결 가정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으며, 등록금 동결안 진행시에만 예산 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해 기권 의사인지 질의 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안건은 1차 등심위에서 상정된 상태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재차 속행은 학생의 요청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동결안 하에서만 속행 가능하다고 발언

하다.

- 위원장이 의결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위원 내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동결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안은 등록금 인상을 제시한 상태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교의 역사와 세계적인 경쟁 속의 학교 상황을 설명하며, 예산안 의결이 되어야 학교 구성원을 위해 시한에 맞추어 장학금, 시설보수 등 필요한 곳에 집행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어떻게 예산안이 학생들을 위해 잘 쓰여질 거라고 믿고 의결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다.

- 기획처장이 오늘 의결하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하지 않냐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구조 상 학생위원이 전원 찬성을 하더라도 의결 진행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밖에서 학생들이 계속 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치고 있고 학생위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회의를 속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다. 또한 지난 1차 회의 때부터 반대 의결은 진행하지 않거나 학생위원을 향해 한숨을 계속 내쉬는 등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반복적으로 내비치는 위원장 하에서 이뤄지는 등심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다.

- 위원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숨쉬기가 어려운 것인지 학생위원을 보고 한숨을 쉴 게 아니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차 등심위는 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찬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니 다시 의결을 해야 하고, 학교측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추경예산만 믿고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안 자체가 학교가 그 내용대로 지출을 하겠다는 학교의 약속이라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안 확정 후 등록금 책정 등 변동이 있으면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속행된 예산안 의결을 거듭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 시 추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다

면 현 예산안은 유명 예산안인 것이며, 신뢰가 깨어져 예산안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반대/기권 표결을 요청하는데 의결권은 위원에게 있으니 진행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이고 3시간 넘게 학생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안 관련 질문은 아니었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안 관련 질의를 계속 요청하였고 개회후 4시간 가까이 소요된 점을 발언하며 회의 진행을 위원장에게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기획처장의 질의 요청은 예산안에 관한 것인데 학생위원 측은 안건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질의를 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산안 작성시 근거가 있을 것이어서 하였을 텐데 왜 1차 등심위 회의 도중에 등록금 인상을 제시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연구 중심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등을 언급하며 우수 교원 확보 등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건 학교의 미션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왜 그러한 경쟁이 다른 재원의 충당이 아닌 학부 등록금 인상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등록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인 것이며, 그동안 선배들의 기부금, 교수들의 연구비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에 다다랐음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법인과 정부 지원 등을 늘려야 한다고 하며 회의장 밖 학생들의 소리를 다시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인력과 교육연구환경에 대한 투자 없이는 도태되므로 투자재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속에 오늘도 기부금 담당 부서는 기부금 모금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인과 부속병원으로부터 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을 수주하여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대학이 보유한 기금도 계속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연구산학 관련하여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각 연구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

621 |
올이고 있으며, 오늘 안건에서 보다시피 대학원 등록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우수 교원과 우수한 연구환경을 갖 추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임을 설명하다. 학부 등록금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을 제시하는 것이며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다. 3차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오늘 속행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거듭 요청하 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학교의 노력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지만 그걸 고려하여 제시한 등록금 동결안이 왜 인상안으로 바뀌게 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1차 등심위에서 다른 교직원위원들의 발언과 같이 정상 적인 학교 운영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며, 의대 휴학이 진행되면 문제가 심각 하다고 발언하다.

민 |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의 노력을 많이 보았으나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학생들뿐이라는 것이고, 등록금을 겨우 납부하는 입장에서 학생들 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재정 안정성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학생은 수혜자로 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며, 예산팀장 발언과 같이 교수, 졸업생, 직원 모 두 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방적인 전가는 아니라고 발언 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인상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근거자료도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안 등 속행 안건 관련 의결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의견을 듣고 어떻게 의결하라고 할 수 있는 지 반문하다.

36 |
- 기획처장이 등심위의 기능이 심의·의결이므로 기구의 성격상 의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제도 자체가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071

- 학부 총학생회장이 결국 절차상 학교도 어쩔수 없다는 것이고, 등심위가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시간을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발언하며, 동결안을 인상안으로 바꾼 것이 졸속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답변을 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은 등록금 책정 건이고 위원회의 성격상 등록금 책정에 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성격상 가능하다 할지라도 원안은 동결안이며, 다른 학교는 최초부터 인상안을 제시하는데 회의 중 갑자기 인상안 제시는 문제이고 그 근거도 듣지 못했으므로 안건 변경이 졸속적인 것을 인정하는지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를 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위원회 성격상 가능한 것이고 시간이 촉박하여 3차 등심위를 제안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민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곳이 등심위인데,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결을 속행하자는 요구하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절차에 대한 것이고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있다는 뜻이며, 등심위가 의결 기구이므로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위원회 진행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데 위원장은 동결안이 인상안으로 변경되었다고 정확히 학생위원에게 발언하였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그 내용은 상정된 적이 없고 진행되는 중이라고 발언하다.

26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1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책정안을 동결에서 인상으로 변경한다고 기획처장이 제시하였는데 위원장은 그 내용에 대해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냐고 질의하다.

-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안건 수정이 되었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건은 3차 등심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22

합의를 했던 것이고, 학생처장 제안과 같이 '인상'을 '책정'으로 변경하여 분리 심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문구 수정 후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기획처장이 학부, 대학원 등록금을 분리해서 심의·의결 제안했을 때 학부 등록금 인상 의도가 있었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할 것을 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예, 아니오는 위원들끼리 할 대화 방법이 아니므로 그만 요구하기를 바라며, 어제 논의한 바와 같이 분리 심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 아니오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답을 꺼리는지 궁금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다른 사람에게 예, 아니오로 의사표현을 강요받는게 처음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는 없고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며, 학생위원들이 예산안 관련 반대/기권 표결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답을 강요하고 억압한다고 하였지만, 그게 의결이고 공식적인 절차인 것이고, 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방식의 질문이 부적절하므로 답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원활한 소통을 하고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어이므로 정확히 표현을 해주어야 학교 측 위원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안에 대한 가부 결정이 등심위 위원이 대답해야 하는 의무이고, 등심위 위원이 의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안건에 대한 의결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 아니오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학생위원들이 예산안에 찬성, 반대를 표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다.

- 기획처장이 똑같지 않고, 위원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회의체에서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데 의견을 예, 아니오로 답

을 하라는 건 처음 본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안 찬성, 반대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예, 아니오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 내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위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의결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럼 의견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 달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인상안을 제시를 하면서 대학 재정상황을 언급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1차 등심위에서 발언한 그대로이며, 속기록이 쓰여지고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면 되고 발언 모두를 기억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럼 현재 생각으로 답변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발언 중 지속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기억이 나고, 회의록이 회람될테니 그걸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걸 지금 답변을 해주어야 예산안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 아니오가 아니라 찬성, 반대인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같은 맥락으로 얘기한 것이며, 기획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 관련은 예산팀장이 답할 수 있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1차 등심위에서 추경예산안과 우리대학의 재정위기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으며, 원금보존기금인출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 확충 노력을 거듭 언급하였고 재정책확 노력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므로 3차 등심위를 개최하여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우리 대학의 재정상황을 1

차 회의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고 예산안 관련 속행도 거듭 요청하고 있음을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3차 등심위가 진행되면 동결안과 인상안이 같이 심의가 될 것 같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예산팀장의 발언을 들었으니 예산안 관련 반대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며, 동결안을 처음에 제시하였고 1차 등심위에서 기획처장이 3차 등심위를 열어 학부 등록금 인상 수정안을 논의하고 싶은게 맞냐고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그런 취지라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문서로 남아있는 건 학부 등록금 동결이므로 학교가 처음 송부한 의도가 있을텐데 갑자기 등록금 인상을 제시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의결이 되면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학생들을 위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번복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는 회의체이고 위원들 간 자유롭게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며, 다른 학교 예시처럼 당장 오늘 의결하기 어려우니 3차 등심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연구학생경비가 41억원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연구비는 이화 프론티어 10-10 1,2기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이 있으며 2024학년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어렵게 추가 확보하여 지출하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포물러사업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비건학식에 대한 요청과 방역 비용 자료 중 수시방역비가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내 정기방역에 대해 설명하고, 2024학년도 수시방역비용은 입시 진행을 위한 방역비용과 지난 8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여 개강 전 수시 코로나 방역을 추가하여 증가한 것이라고 답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학내 벌레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며 방역 예산 추가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재원을 확보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생 복지 목적에서 비건 학식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건 학생들에게 학식이 없다는 것은 학교 주변 다른 식당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와 같아, 생존권 문제와도 같다고 언급하다. 비건 학식 도입의 필요성을 식사 선택권 보장, 건강권, 다양성 측면에서 설명하였으며, 타 대학의 비건 학식 운영 사례를 예로 들어 수요일 단품 메뉴 제공, 한 두 가지 비건 메뉴 추가, 채식 뷔페 운영 등의 방식을 제안하다. 추가로 건물 방역 개선을 위한 예산 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24년도에 특수 방역 횟수가 증가한 점에 대해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학생식당 관련 비건식 요청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비건식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수요와 무관하게 진행을 바란다고 발언하다.

- 총무처장이 학교가 식당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학생식당을 직영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업체와 논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위탁운영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다만 비건식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충분하여 업체가 운영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답하다.

- 관리처장이 최근 식당 운영업체들이 학교 식당 운영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와 입찰공고에 응하지 않아 유찰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식당 운영업체들도 일정 수준의 수익이 확보되어야 식당 운영을 지속할 수 있

음을 부연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작년 정기협의체에서도 요청한 바 있으며 학교에서 운영업체에 요구하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였는데 운영업체와 학생 간 만남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일정 수준의 수요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비건식 추가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변하다.

- 학생처장이 중간고사 김밥 배부 등에서 비건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시범 적용한 사례에서 예상보다 학생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음을 설명하고, 천원의 아침밥이나 요일별 운영 등 점진적으로 수요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40%의 학생이 비건 학식을 원하며, 이 부분은 학생의 생존권과 건강권과 연결되므로 학교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보장을 원하며, 직영이나 이수매니지먼트에서 운영도 검토 부탁하며, 이수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운영되는 자회사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수요 파악은 적극적으로 해보겠으며, 완전 비건식은 아니지만 샐러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식당운영업체와의 계약을 도중에 해지할 수 없으므로 식당운영업체와 상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샐러드 정도가 비건식인 것이 아니며, 직영 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직영을 하면 학교에서 전문성이 떨어져 운영할수록 적자만 누적되며, 운영업체에 운영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지원을 해서 전문적인 업체가 입점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이수매니지먼트는 법인 자회사이며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라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휴회를 요청하여, 휴회를 진행하다.

- 위원장이 휴회시간 중 회의장에 들어온 위원이 아닌 학생들의 퇴장을 요청한 후 질의응답 재개를 요청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입학장학금 계속 수혜 기준이 높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예산 편성 방법이 입학장학금 선발 기준인지, 전년도 실수혜자 기준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입학시 E·W·H·A 4가지 장학금이 있고 각각의 장학금을 묶어서 입학장학금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초합격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최초합격자가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 집행액을 참고하여 편성한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대나 과별로 특성이 달라 학점의 전반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며, 입학장학금 계속 수혜기준을 넘기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음을 언급하며 검토를 요청하고, 학점인플레이션에 대해 학생들은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다.

- 학생처장이 학점인플레이션은 2018년부터 시행중인 교수자율평가제에 따른 것으로 현재 A등급 비율이 60%이상이라고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학생들의 학점 경쟁이 어려움을 언급하며 학점포기제와 같은 제도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위원장)이 학점포기제는 수년전부터 학생들 의견이 있으나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있는 제도이고 관련 부서간 검토, 정책토론회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들간에도 유불리가 발생하므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각 단대 시설 관련 단대에 요청하면 단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등심위에서는 단대요구안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수업 및 단대 운영을 위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배정하고, 그 외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경우 특별예산 신청을 받고 있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용 예산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재정 한계상황으로 인해 신청하는 특별예산을 모두 배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임을 부연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총무처장에게 셔틀버스 관련 차량 추가, 점심시간 이용 등에 관한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학교의 지형상 굽고 좁은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차량을 많이 배차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점심시간 운행 여부는 기사들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하다.

	<p>-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셔틀버스 차량이 커져서 조예대 앞 회차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의 작은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p> <p>- 총무처장이 셔틀버스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셔틀버스 차량은 운영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현 운영업체는 버스이용학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큰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전 업체의 기존 차량은 사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정문 정류장 후 조예대 정류장은 상대적으로 짧아 원활한 운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다.</p> <p>- 예산팀장이 현재 매우 늦은 시간이므로 재정 관련한 질문 위주로 진행 부탁하며, 다양한 질의사항은 학생처 협의체를 이용하기를 요청하다.</p> <p>-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인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학생처 정기협의체를 말한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정기 협의체가 있고, 작년에는 등록금 관련 추가 협의체를 진행한 바 있는데 올해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안건과 실무자가 배석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p> <p>- 기획처장이 작년에 한 차례 진행을 했는데 올해 진행 여부에 대해 학생처의 의견을 요청하다.</p> <p>- 학생처장이 작년에 두 차례 정기협의체 외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협의체를 진행하였는데 실무진이 계속 참석하고 중복되는 자료도 준비하다보니 소모적인 부분이 있으며, 다른 부서 인원에게 계속 참석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기 협의체에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정기 협의체가 매년 실무진들이 예산 부족을 언급하여 논의가 안되고, 예산이 필요없는 안건만 통과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 1,2월 요구안을 정리하여 3월 진행이 어떠냐고 제안하다.</p> <p>- 학생처장이 확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고 관련 자료는 있으니 다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답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처장들은 실무진이 아니니 학생요구안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체를 통해 예산 편성을 해줄 수</p>
--	---

있는지 결론이 있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작년과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수인계하는 처장에게 협의체 약속을 해달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다음 처장단에게 전달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추경예산에 학생 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해 10월에 단독 등심위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4월 결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를 바라며 흥익대는 학생 요구안만을 안건으로 하는 사례가 있으니 추가 등심위를 요청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작년 4월 등심위에서 진행한 사항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이 상정되는 것이 무게감이 다른 것이며, 협의체가 아니라 별도의 등심위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4월 결산 등심위에서 구조뿐만 아니라 학생 요구안도 안건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요구안은 예산 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등심위 안건은 심의·의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요구안은 심의·의결 대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구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수입이 늘어나고 학생요구안이 회의에서 언급되면 모두 회의록에 기록되므로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에서 다뤄지는게 예산안 반영에 더 확실한 방법이며, 협의체에서 예산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등심위에서 요구를 하면 논의를 하게 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처장의 발언이 등심위 추가 개최인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4월 등심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등심위 후

속 협의체는 2월이나 3월에 진행하자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 배석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참석하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시간이 너무 늦었으므로 안건 관련 진행을 요청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기금 적립금이나 차기자금 이월금이 꼭 필요한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선급법인세 등 이월금 내역을 설명하고 기금은 장학기금 등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고 학교 운영수지를 충당하고자 함부로 인출하여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천억 원의 기금이라고 하지만 실제 본부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소진되었음을 답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에 타고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적는데 늘릴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장학금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으며,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을 장학금 확충이나 연구 시설 개선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등록금이 작년 4%에 이어 올해 2% 인상을 제시하였는데 대학원생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으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등 소액이더라도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경비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회 참가비 등 연구처/산학협력단과 연구지원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안이 있는 가운데 예산안을 동결로 편성한 것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민주적인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025학년도 예산안 증감 표를 보니 마이너스 항목이 많은데, 전입 기부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산학전입금 수입의 감액 사유를 질의하고, 대학원 학생회장의 지원 요청에 예산팀장이 산학협력단과 논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는 상황에서 쉽게 약속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다.

	<p>- 예산팀장이 전입 및 기부금수입 중 국고수입이 감소하였고 1차 회의 예산안 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학년도에는 2024학년도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 미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수입 및 각종 지출이 감액편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산단전입금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서 연구 지원을 위한 집행을 늘려나갈 예정이며, 대학원생 지원은 연구처/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산학전입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다시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산학협력단의 학교 전출에 대한 제한이 많아진 배경을 설명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임을 설명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경비 관련 학생회 관련 예산 증액은 어려운 것인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지난해 대동제 예산을 증액한 바 있으며, 재원이 확보되면 시급성, 중요성에 따라 검토한 후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경비 중 자치활동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앞선 발언과 동일하다고 답변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해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목동 의학관 매각대금의 5년간 분할 입금에 따른 유동성대체분 즉 다음학년도 입금분을 전학년도에 기타자산으로 계상하여 왔으나, 2025학년도에 잔금 입금으로 완료되어 2025학년도에 기타자산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기금적립금액에 대해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회의자료에 기재된 내용으로 적립내역과 인출내역을 설명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감액되었는데 그럼에도 차기자금이월금을 남기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2022학년도에 유례없이 큰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인출하여 상황을</p>
--	--

극복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차기자금이월금은 선급법인세 등과 더불어 자체 수입사업예산이 있는 기관에서 사업이 연속적일 경우 이월금을 편성한다고 밝히고, 2022학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계속된 수입 감소 상황 속에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한 부분을 기금인출을 통하여 해소한 바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결과 자료에서 보듯 추가 인출가능한 기금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특히 원금보존기금까지 매년 큰 규모로 인출하여 충당하고 있는 부분은 원금을 운용하여 발생할 미래 이자수입까지 인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의대 휴학으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등록금 인상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기금에서 인출을 고려하지 않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4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십억 원의 등록금 수입이 재차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등록금 인상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교비회계의 2025학년도 예산(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 학생회장 총 8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여 교비회계의 2025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다음 안건 진행 전, 등록금 인상안에 절대 찬성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밖에서 목이 쉬도록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에게 등록금 인상이 무섭다는 생각으로 7시간째 외치는 후배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구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이 진행된 것도 아니지만 재무처장으로 있었던 경험상 그 당시보다 예산규모나 기금이 크게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가 약해지고 교원 채용도 어려워진 상황은 안타깝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말도 안되는 수준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계속 안타깝다고 하는지 반문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다.

	<p>- 예산팀장이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에게 유리한 원칙이라고 부연 설명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에게 유리한 것과 내용도 알고 있다고 발언하며, 작년과 동일한데 작년의 잉여금의 규모와 활용처를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9억 원 수준으로 무선네트워크 등 교내 교육환경개선에 투자가 되었음을 설명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무선네트워크에 추가가 되었는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정보통신처를 통해 학생들의 많은 요청과 사업부서의 무선랜 고도화의 필요성을 전달받아 검토하였고 코로나 이후 재개된 대면 수업에서 전자기기 사용의 폭증에 따른 필요성과 시급성은 있으나 총예산규모가 40억 원 이상이라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를 확보함에 따라 여러 재원을 활용하여 2년에 걸쳐 진행하였고, 그 외 냉난방 관련 많은 요구에 대해서도 대규모 예산투자가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에서 여러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계획을 짜놓고 있으며, 이번 인센티브 및 추가 예산을 투자하여 신공학관과 교육관B동 일부에 겨울방학 중 공사가 진행되고 있듯, 교육기자재/냉난방 설비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도 재원이 마련되는 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5학년도 요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4월 등심위와 정기 협의회를 이용할 수 있고, 부분별 예산관련 요구는 각 대학이나 학생처, 관리처 등 각 부처를 통해 예산팀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유념해서 듣고 재원 마련시 신속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잉여금 규모를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2024학년도 결산이 완료되어야 알 수 있다고 답변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후속협의체에서 예산팀장 배석 시 잉여금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잉여금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하고</p>
--	--

015

반

22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그 규모는 결산이 완료되는 4월 중에 확정되므로 협의체 일정상 규모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나, 협의체나 등심위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4월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을 준비하겠으며 사전 자료로 잉여금 규모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사전 자료로 준비하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 학생회장 총 8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여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을 의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이 학생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표결한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부연 설명하다.

- 위원장이 다음 안건인 기금용도 변경(안)을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EWC와 헬렌관 재건축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첨단도서관 관련 기금의 규모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세부적인 기금 관련은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데 이렇게 큰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추가적인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재건축을 위해 적립한 건축기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기금용도 변경(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 학생회장 총 8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여 기금용도 변경(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2차 등심위의 안건을 진행한다고 발언하다.

29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총학생회장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새벽이라 진행이 무리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계획된 것이니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5분간 휴회가 가능하냐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자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회의자료에서 문구를 수정하여 학부 등록금 책정 심의의 결을 위한 3차 회의 개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 문구 변경에 대해 의결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 상정은 위원장의 권한이고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안건 수정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진 않으므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다. - 기획처장이 인상안이 어제 논의 사항과 다르다고 하여 수정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을 학생위원 측에서 바꾸자고 한 것도 아니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안건 수정에 대해 의결하겠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부등록금 인상(안)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를 학부등록금 책정(안)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찬성하는 위원은 표결해달라고 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다. - 예산팀장이 방금 학생위원이 안건을 제시하여서 의결을 하는데 학생위원 측이 왜 찬성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발언하다.
--	---

원

반

26

2

이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분리 심의 안건의 의결 여부를 모르는데 원안이 빠진 건 말이 안되고 명칭 수정에 왜 찬성하지 않는지 물어보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진행하고 표결을 하는데 반대를 하여 당황하였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표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부 등록금 동결안이 빠진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거듭 대답하지만 동결안 가부로 의결되는게 아니고 동결, 인상 포함하여 책정을 위한 등심위를 다시 개최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민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 측은 애초에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책정 분리가 시기상의 차이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동결안을 바꾸려는 분리가 아니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반대하는 위원은 표결해 달라고 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반대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의사 표명이 없으면 기권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아직 의결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학생위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왜 계속 학생위원 측 의결을 강요하냐고 반문하다.

하
- 위원장이 학생위원 측에서 안건으로 처리를 원한다고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칭 변경은 그렇다고 해도, 원래 안건에 추가가 된 것이면 추가인 것이지 변경은 부당하며, 그걸 가지고 계속 언급하면 의결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언하다.

6 (1)

- 위원장이 안건명 수정에 대해 학생처장 제안이 있었고 동의하여 그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내규와 법령상 모두 맞지 않으며, 기존 학부 등록금 동결안이 빠진 것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다음 의결 진행해야 하며, 원안이 빠진 안건 편집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아까 언급했듯이 1차 등심위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안건을 준비했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중립적인 내용으로 바꾸었고, 의결이 필요하다 하고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원안이 다시 복구되는 것이냐고 질의하다.

원

- 기획처장이 2차 등심위 첫 번째 안건은 3차 등심위 여부에 대한 심의이며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하다. 그리고 다음 안건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 학생위원의 의견대로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그 부분은 합의가 되었다 생각해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표결 진행하겠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부등록금 인상(안)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안건의 명칭을 '학부등록금 책정(안)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여 안건 명칭 변경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하겠다고 하고, 학부등록금 책정(안)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안건의 논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휴회가 없냐고 질의하다.

3-6

- 기획처장이 휴회가 아니더라도 화장실은 회의진행 중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녀올 수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휴회 때 위원이 아닌 밖의 학생들이 회의장으로 진입한 것 때문이냐고 질의하다.

- 위원장이 시간이 늦어서 빠른 진행을 하려는 것이라고 답하다.

회
이

- 학부 총학생회장이 사전송부자료는 학부 등록금 책정(안),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이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학부 등록금 책정(안)이 분리안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고등교육법상 원안을 수정해서는 안되고 학부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 결과를 모르는데 원안이 빠진 것은 문제라고 하고, 수정이 되었으니 진행된다면 안되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 수정 관련은 회의체로써 운영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며, 등심위 운영상 이례적인 부분이어서 3차 등심위를 제안하고 오늘 그에 관해 심의·의결을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며, 모든 위원들이 경위는 알고 계시니 이해를 부탁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이해로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학부 총학생회장은 사과를 요구한 것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발언하다.

민

- 기획처장이 등심위 관련 있을 수 있는 일이고 1차 등심위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발언하다.

우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위원의 요청은 3차 등심위 개최 여부를 논의하자고 한 것인데 의결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3차 등록금 동결안이 빠진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며, 1차 등심위의 사과와 다른 것이라고 하며, 이렇게 단순한 부분도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1차 등심위에서 2차 등심위 내용을 논의하면서 정리가 되었고 3차 등심위 안건이 부결되어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오늘 하게 된다면 학교 수정안을 준비하여 의결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계획이면 1차 등심위에서 언급을 하던가 사전송부자료에 동결안과 인상안이 함께 들어간다고 고지가 되었어야 하며, 본인은 이 안건 편집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발언하다.

려

- 기획처장이 오늘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는 것이면 안건으로 기재하였겠지만 1차 등심위 논의 시 3차 등심위 개최 표결을 오늘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발언하다.

우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3차 등심위 개최는 동결안이 기준이었고 오늘 학부 등록금 책정을 하게 되면 그 자료는 사전송부했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은 책정안이니 송부가 되었고 내용은 심의회이니 변

	<p>경이 가능하다고 답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 제목만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안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래서 3차 등심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 오늘 표결하자고 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것에 대한 합의만 있었지 의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요구안과 예산안 검토가 필요해서 그랬으며,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회의 자료를 작성한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1차 등심위에서 3차 등심위 개최가 의결 사항은 아님에도 필요하다고 하여 만장일치로 상정을 하기로 하였고, 회의진행 흐름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자료준비한 것임을 설명하고, 다만 안건표현에 있어 인상안으로 기재하여 책정안으로 변경하는 의결을 진행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사과드린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은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명칭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언하며, 부결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불찰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다. - 위원장이 학부 등록금 분리 심의에 대한 3차 회의를 위해 충분한 자료와 준비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어떤 책임을 말하는 건지 확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동결안 의결을 요구한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어제 합의된 내용이 분리 심의를 의결하자고 한 것인데 표 현상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더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묻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제대로 된 안건도 아니고 원안도 아니므로 이 자
--	--

65 | 리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료의 오류가 있으므로 원안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나머지 안건의 의결 가능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명칭이 1차 등심위 논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오늘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민 - 외부전문가위원이 8시간 가까이 발언 없이 참석 중이었으며, 그 이유는 학생위원의 지적과 같이 분리 안건으로 바뀐 안건에 대해 학생위원들이 어떻게 느낄지 충분히 알기 때문이었다고 하며, 1차 등심위에서 분리심의를 보고 이해한 바로는 원래 7일 전에 안건이 고지되어야 하는데 부의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을 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학부 등록금 책정안은 미리 전달은 됐지만 상정이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다. 또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라던가 심의회 등에서는 다 통과된 안건이나 부의된 안건에 대해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회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설명하다. 오늘의 안건 불상정은 위원장 독단이 아니라 어제 합의를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전형적인 확대 해석이고 수정되면 안된다고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긴급안건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며, 본인도 같은 얘기를 8시간 가까이 계속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현재는 인상안도 동결안도 없는 상황이므로 등록금 책정안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또한 시간이 너무 늦었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알리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종료 시간이 없는 회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내일 다들 일정이 있을텐데 계속 앉아있지 않냐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결일 수 있으니 학부 등록금 책정안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26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외부전문가위원은 재정 분야에 대해 발언해 주시면 되는데 왜 지금 상황에 대해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으며, 관련하여 한마디도 안하시다가 지금 발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재정 관련 한마디도 안하지 않았으며 오늘 재정 분야 논의가 있었냐고 발언하다.

65 |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내일 일정이 있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본인도 사명감이 있으며, 1차 등심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왜 계속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이 여러번 질문하는게 문제냐고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예산안은 어제 이미 다 질문을 하였고, 재정 전문가로서 예산안에 나오는 증감에 관한 질문과 부속병원 회계에 관한 질문도 여러번 했다고 발언하며, 학생위원들이 오늘 회의에서 1차 등심위에서 더 나아가는 질문은 할 게 없었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다.

민 - 외부전문가위원이 제3자 입장에서 다들 감정적인 상황이고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집중력 또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오늘의 안건을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다.

- 위원장이 그럼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책정은 분리가 아니게 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원의 경우 신입생 납부 일정이 있어 반드시 오늘 의결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등록금 납부 일정이 맞다고 확인하고 오늘 안건을 연기할 수 없음을 이해하므로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과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은 오늘 진행을 하자고 발언하다.

326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앞선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원 등록금 책정 관련하여 2안 모두의 표결을 진행하자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시급성이 있으면 학교 측에서 안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했다고 발언하다.

01

반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내규와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등심위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법보다 행정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원 등록금 관련 직접 연관이 있는 위원이 요청을 한 사항이며,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가 나가야 장학금 입력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오늘 의결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왜 계속 편의를 원하면서 등록금 동결안은 인상안으로 편집되고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안건을 바꾸어서 진행하냐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그건 아니고 가,나,다 차례대로 진행을 하자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원안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니 진행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금까지의 동결안 주장은 꺾음으로도 듣지 않고 대학원 등록일정만 언급한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속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였고, 학부, 대학원 분리 심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안건으로 올렸는데 인상이라는 명칭이 문제이니 그걸 변경하는 의결을 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부결이 되면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결 가능성을 없다고 보고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학부, 대학원 분리 심의는 다 동의한거 아니냐고 되묻다. - 관리처장이 본인도 3차 회의를 진행하자는 합의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였고, 그러므로 이 안건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차 회의를 결정한 게 아니고 3차 회의 의결 자체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니 동결안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어제 녹음자료에 다 있을텐데, 어제 3차 회의 개최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니 2번 안건 진행에 이상이 없을 것 같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원안을 삭제하는 거면 1차 등심위에서 오늘은 학
--	--

부 등록금 책정안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짚었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넘겨짚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분리를 하자고 한 건 원안대로 할거면 필요가 없는 것이며, 회의 중 인상안이 나왔고 따라서 논의가 2차 등심위에서 끝날 수 없을 것 같아 분리하여 진행하자고 한 것이며, 그 맥락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니 오늘 의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상안 자체에 합의한 적도 없고 동결안이 스탠스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합의를 했어도 절차를 싸그리 무시하고 합의한 것으로 안건 상정하는 건 내규와 법규를 지키지 않고 형식만 있는 등록금심의 위원회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내규상으로는 일정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어제 합의를 하여 의결 절차까지 진행을 한 것이라고 하며, 대학원 대표의 의사대로 대학원의 필요가 있으니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정당성을 얘기하는건데 이게 맞다고 보는지 묻고, 책임을 못 지겠다 하면서 의결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자료에 안건을 기재시 부결의 경우를 가정한 안건을 추가로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오늘 회의의 다른 안건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함을 설명하고, 부결 된다면 심도있는 재논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안건 의결 진행을 거듭 요청하다.

- 위원장이 학부 등록금 관련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의결 진행을 바란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양측의 논리가 몇 시간 동안 지속 좁혀지지 않고 비생산적인 논의만 지속되고 있으니 학생위원측의 요구를 밝히겠다고 발언하다. 2번 안건 진행을 위해서는 안건이 잘못되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등심위 구조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발언하다. 3차 회의 일정은 학생측이 정하고, 구조등심위를 개최하고, 자료는 2~3일 전에 송부해야 하는 것을 확실히 약속하면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참관인과 참관인 발언 허용, 외부전문가위원과

학생위원간 사전 면담,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심위 회차 보장, 등심위 개최일과 이사회 협의회 사이 시간차 보장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차기 회의가 잡힌다면 날짜는 학생위원 측에서 먼저 날짜를 제안하길 원하고, 구조 등심위에 대해 확답을 듣길 바라며, 자료는 2~3일 전에 메일로 송부하여 언제 어디서든 열람 가능하게 할 것이고, 외부위원과 면담의 시간을 원한다고 재차 강조하다.

- 학생처장이 날짜 특정의 의미를 질의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교 측에서 제시한 날짜에서 2년 연달아 1,2차 회의가 연속으로 잡히게 되었고 회의일정 수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두 회의 날짜 사이에 학생위원에게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다.

- 기획처장이 내규에 따르면 회의일정은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어렵지만 시간은 충분히 확보해 보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024년 1차 등심위에서 예산팀장이 회의 일성과 법적기한을 고려하였다고 대답했는데 기획처장의 대답과 모순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당시 대답은 총학 임기가 1월부터 시작이 되고 학교의 제반의 학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등심위 일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학생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그 과정에 1,2차 회의가 이를 연속적으로 개최되게 되었음을 설명한 바 있고 올해도 동일한 상황임을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교직원위원은 어느 정도 학생위원에 비하여 업무가 과중함을 인지하고 연초의 행정업무가 물리는 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논의 시간이 필요하고 회의 양일 간 사이가 5일은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팀장 발언처럼 다음 등심위 일정을 정할 때는 무리가 되지 않게 정하고 이번에 일정이 정해진 것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회의자료를 받고 학생위원이 추가 요청한 사전 열람 자료의 메일 송부를 요청하다.

	<p>- 기획처장이 보안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답변하다.</p> <p>-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현재 요구하는 자료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위원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보안의 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고려대, 한국외대, 서울대 등 거의 주요한 대학들이 메일 송부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해당 대학에 확인하고 다음 회의에서 언급하겠다고 발언하다.</p> <p>-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의 자료 2~3일 전 송부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회의 전 중운위 등 학생측과 사전 면담하는 것에 대해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등심위가 그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된다고 발언하다.</p> <p>-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관인 발언에 대해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작년에 오랜 논의 끝에 총학 당선자가 업무 관련하여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참관하는 것을 시작하였으며 일단 그대로 운영해보기를 원한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동안은 인상안이 없었으니 그런 것이고, 이러한 특수 케이스에서는 참관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그러한 요구에 대한 이전 합의에 따라 우리 회의록을 다른 학교 대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여 학생들이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다.</p> <p>-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회의 일정과 양 회의간 최소 5일 간격은 확답을 한건지 확인하다. 5일 간격으로 여러 날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측이 5일 간격으로 먼저 제시할 수 있냐고 질의하다.</p> <p>- 기획처장이 아까의 발언과 같이 기존대로 운영하고 다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준비하겠다고 발언하고, 1,2차 등심위 일정이 너무 연달아서 그런 것이니 3차 등심위는 여유를 두고 3개 이상의 일정을 제안하겠다고 발언하다.</p>
--	---

	<p>- 학부 총학생회장이 3개 일정은 부족하고 5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고지서 일정과 관련되어 있으니 외부전문가위원 등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지금 정해도 될 것 같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자료에 대한 학생위원 요청자료는 메일로 2~3일 전 송부하고 구조등심위도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기존과 같이 결산 등심위에 시간이 있으니 그 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될 위원측에 전달은 하겠지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 자리에서 구조 관련 등심위를 결정하고 인수인계를 바란다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등심위에서의 요구안 논의에 대해 언급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을 언급한 적도 없고 구조 관련 문제를 논의하거나 안건 상정할 수 있는 등심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인상 시 학생요구안이 있으면 반영을 할 것이며 그것은 4월 등심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겠으나, 나머지 사항은 새로 구성되는 처장단에게 전달을 하겠으니 추후 논의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 구조가 비민주적이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구조 등심위를 요구하는 것이며, 4월 등심위의 내용이 적으니 구조도 함께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쉽게 한 발언은 아니고 후속 처장에게 구조 등심위 요청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를 인수인계하고 일정만 다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의 의견을 질의하다.</p> <p>- 위원장이 본인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구조 등심위에 대한 부분을 전달은 가능하나 날짜를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하다.</p>
--	---

원
- 기획처장이 일정을 5일 차이로 하는 것, 자료를 2,3일 전에 보내는 것은 예산팀 업무이므로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구조등심위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확답이 어렵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이든 동결이든 학교측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 면담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인수인계 뿐 아니라 확답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오늘 등심위에서 논의를 10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논의를 소홀히 한 적은 없으니 등심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정보의 격차가 있는 것이며, 학교 측에서 갑자기 인상안을 꺼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부생 모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학부 대표 5명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원
- 기획처장이 등록금 책정은 등심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면담과 구조 개선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의결할 생각이 없으며, 요구안의 반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3차 등심위에서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수인계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까지가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다음 주에 구조 등심위 관련 전달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면담이나 배석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구조등심위 확인을 해서 공유하겠다고 발언하다.

6
- 학부 총학생회장이 3차 회의는 지금 정하고, 자료는 사전자료 포함 메일로 송부하고, 구조등심위는 월까지 정하고, 회의 일자는 복수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부등록금 책정(안) 분리 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

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여, 학부등록금 책정(안) 분리심의 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를 의결하다.

- 위원장이 예산팀장에게 3차 회의 일정 조사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각 위원의 일정을 조사하고 2025년 1월 17일 18시로 정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회의자료 송부 일자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1월 10일 중으로 송부하며, 동결안과 인상안이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하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 요구안은 언제 송부하는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미 송부하였다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인상안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재정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번성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상안이 아닌 동결안 기반의 요구안이라고 확인하다.
- 위원장이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책정안을 보고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올해 2% 인상하는 이유와 내년도 인상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확대된 대학원 장학금과 교육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였고 지속가능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2%를 인상한다고 밝히며, 내년 계획은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답하다.
- 기획처장이 법전원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관련 많은 시설투자와 더불어 법전원 소속 많은 특임교원 인건비를 법전원기금으로 충당해 왔으나 해당 기금으로 더 이상 충당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2년간 물가상승 대비하더라도 크게 상회하는 것

회

019

같은데 한번에 큰 폭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이 나올 것이라고 발언하고 대학원도 2%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학생이 50% 정도인데 처음부터 정해진 안인지 조정이 있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우수 연구 논문작성에 필수적인 전자저널의 경우만 해도 물가 인상에 환율 폭등까지 더해져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이 커진 부분을 고려하여 2%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법전원은 앞서 설명한 사유로 말미암아 5% 인상안을 제시한 것임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등심위 대학원 대표가 1명인데 전문특수대학원의 경우에도 선출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발언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제시한 2%는 혹시 하향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재정의 한계와 저널 등 투자비용의 급등으로 많은 부분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필수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면 장학금 확대와 연구/장비 지원에 재원이 활용되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원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여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책정건별로 자세히 설명하다.

민

반

회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기존 등록금 유지라는 의미는 2024학년도 등록금이 그래도 적용된다는 뜻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존의 등록금 계열을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계열이라는 말은 없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계열이라는 것은 등록금 책정시 등록금계열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책정이 부적합하다고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학생위원의 의견과 같이 안건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다음 번에 진행하기를 권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원 관련은 의결을 해야 등록이 진행될 수 있고 세부적으로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과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은 등록금계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의결을 원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팀은 계열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지만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만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3차 등심위에서 진행하자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부결되어야 하며, 부결 자체가 안건에 문제가 있어 책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의결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부결은 절차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의결을 미루는 대신 절차를 정확히 하기 위해 일단 부결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며, 업무상 동의 어처럼 사용하는 용어이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계속 첨언을 하면서 궤변을 하면 납득할 수 없
--	---

정리

2(1

	<p>다고 하며, 다음 회의자료는 명확한 용어로 금액까지 기입해서 준비하라고 발언하며, 절차상 부결이 된 다음에 진행이 되는게 맞다고 발언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의 안건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은 용어가 정확하기에 부결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부등록금 책정안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 신설에 대한 의결은 말도 안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정확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의결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은 부결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언어적 가독성 뿐 아니라 학부 등록금 책정안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학부 관련 안건은 모두 부결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의결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보인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이 이상하면 부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안건이 문제면 의결을 안하는 게 맞고, 고쳐서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외부전문가위원의 발언은 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그 때 의결 진행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고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학부 총학생회장의 의견이 타당하며, 동결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등록금 책정안이므로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을 모두 연기하는게 옳다고 발언하다.
--	---

민

반:

26

21

정기

01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을 넘기는건 무책임하고 부결을 해야 하며, 유리하면 진행하고 불리하면 넘기자고 하는 것을 비판하다.
- 기획처장이 부결하고 재상정하라는 취지임을 확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런 것이며, 문구 자체가 기존 등록금이니 안건을 부결하고 다시 안건을 가져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1월 17일에 재상정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재상정을 조건으로 의결 진행 요청드린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예산팀장 총 1인이 찬성하고,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10인이 반대하며,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 2인이 이 기권하여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사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을 부결하다.
- 위원장이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예산팀장 1인이 찬성하고, 학생처장, 총무처장, 외부전문가위원,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9인이 반대하며, 교무처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총 3인이 기권하여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을 부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국가보조금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를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냐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앞서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양한 부분의 평가를 통해 S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수령하였고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 또한 S등급의 기여요소 중 하나라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로 인해 소속 학생들이 많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들을 위해 1년 정도 인하를 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첨단학과에 필요한 고성능 기자재 및 그 기자재가 활용

인

반

76

72

	<p>될 수 있도록 전기용량을 마련하기 위한 설비 등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최소한 인공지능대학의 요구안인 과방이라도 확답을 받고 싶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인공지능대학은 생활환경관 재건축 공간에 배정될 예정으로, 현재 ECC에 임시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ECC 내에 과방을 만들 수 있을지는 공간 관련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EWC는 한참 후의 일이고 이 과정에서 현재 학생이 졸업을 할수도 있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 전달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최소한 인공지능대학에 모니터, PC가 포함된 실습공간 마련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인공지능대학에 PC실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24학년 중에 PC와 서버를 구매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 부분에 예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배정하여 진행한 부분이며, 확인하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은 부결 적용인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두 학과의 평균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과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과 같은 논리로 부결이라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앞선 안과 동일한 맥락으로 수정하여 다음 회의에 안건 상정하겠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예산팀장 1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	---

27

01

총 6인이 기권하여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을 부결하다.

- 위원장이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 중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여 신설학부/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 중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3차 등심위 일정으로 1월 17일(금) 18시, 동일 장소를 안내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등록금 안건은 3차 등심위에 상정하겠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3차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안 심의, 학부 등록금 책정안,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을 진행하겠다고 발언하다.

빈

반

6

22

양회

	<p>■ 폐회</p> <p>- 위원장이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p>					
<p>확 인</p>	<p>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1월 8일</p>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명휘	이명휘	위 원	송수진	송수진
	위 원	김수민	김수민	위 원	왕혜정	왕혜정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윤정원	윤정원
	위 원	반지민	반지민	위 원	이다연	이다연
	위 원	백은미	백은미	위 원	이주연	이주연
	위 원	서유리	서유리	위 원	정덕유	정덕유
	위 원	석지우	석지우			
<p>작 성 자</p>	<p style="text-align: right;">예산팀 김민중 김민중</p>					

민

당